

관음종

법공양 페이지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신선했습니다. 신설 법공양면은 ...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과는 별도로, 통찰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찬란한 생명의 빛이 나의 참모습

“여래의 오직 하나 뿐인 위대한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여래의 지혜를 발휘하여 사람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여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여래께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래가 지혜를 발휘하기까지의 과정(道程)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세존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이 일이 사리푸트라여, 여래의 유일한 목적이며,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유일한 동기인 것이다”(방편품)



홍파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이것은 법화경 방편품의 내용입니다. 한역본에서는 開·示·悟·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대사언어이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래의 위대한 목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래의 위대한 목적

부처님의 위대한 인력과 우리들의 간절한 인력이 하나가 될 때 법화경에서 누누히 강조하는 부처님의 지견(知見)이 열리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비로소 열리면서 생명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은 생명의 실상에서 한 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누גע길 동안 쌓여온 업연과 욕망 그로인한 무명에 가리어 찬란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선 그러한 중생들에게 知見을 열어주어 생명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하려하십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신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실상은 찬란한 빛을 발하여 일체의 존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빛은 모든 중생들의 내면을 비추는 것이라 시공을 초월하여 집든 중생들을 일깨워 줍니다. 애석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의 무지입니다. 생명의 실상이 우리들 자신 이외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찰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땅을 찾아야 일어설 수 있듯이 참생명의 주체도 나 자신이요 생명의 찬란한 빛을 찾을 사람도 나 자신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

하고, 편안하지 못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열반을 성취하게 하리라”(약초유품) 이것은 모든 불교인들의 근본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4중서원이라 하며, 행사 때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중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인간들의 신실과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많은 종류

약력

- ▽1943. 10. 8 서울생.
- ▽67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 ▽77년 묘각사 주지.
- ▽81년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사무총장.
- ▽82년 한국불교기유총연합회 회장.
- ▽86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현재).
- ▽88년 관음종 재단이사장(현재).
- ▽89년 관음종 총무원장(현재).

의 가르침을 보이라. 각종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분발시키리라. 이것이 나의 독자적인 지혜의 힘이다”(방편품)라고 말씀하십니다.

“욕망·무명 휩싸이면 마왕의 권속 사회의 빛과 거름될 때 관음 나투어”

보살이라 부릅니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으로서 ‘여래의 사도’라 부릅니다. 부처님을 대신하여 부처님의 일을 실천증행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인들의 사홍서원

이러한 보살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위대한 인력을 세워야 합니다. 여래의 일을 대신하여 일체의 중생들을 모두 안락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서원입니다. “보살은 위대한 서원의 힘으로 혼란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 태어나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대비바사론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며,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다. 삼의 여정에 빛과 희망을 던져 주는 간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생들의 마음가짐은 어떨습니까.

폭풍우 속에 떠 있는 대해의 조각배같은 우리들의 삶이 아닐 수 없건만 저 잤다고 깃고 떠돌고 까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속이고, 때리고, 핍박하며 무엇인가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난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염된 환경, 무너진 인륜, 삭막해진 인성, 어디에도 편안한 곳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얼마나 가없는 중생들입니까. 그러나 불난집에서도 아이들을 구원해 내는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신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을 자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희망과 밝음의 세계로 들

실천수행이 우리 할일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전백역 화신이 나오며, 이 사회의 빛과 거름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관음보살이 현현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구원길 이전에 이미 성불하였으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삼과 죽음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참 생명도 이미 구원길 이전에 불성 그대로 성불하여 있는 완성된 존재인 보살도를 실천하기위해 태어난 보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삼과 죽음이러는 변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천수행이란 부처님의 출현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말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욕망과 무명에 휩싸여 가면 마왕의 권속이 되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 그대로가 석가의 화신이요 관음의 나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종지와 연혁

대한불교 관음종은 대각각사 의견을 종조로 석가모니 불의 ‘불지지견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고 깨달아 들어가는 것)’의 법화사상을 정혜경수로써 체득하여 보살의 제세원력을 구현함을 종지로 하고 있다.

관음종의 탄생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과 더불어 태허 흥선 대종사는 오랜 수도

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승속 혼연일체종단’인 ‘불입종’을 문화부에 등록, 초대종정에 취임하고 10여년동안 문서포교와 도제양상을 지도육성하여 교계에 커다란 비람을 일으켰다.

그후 1989년 종헌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으로 문화부에 등록하고 오늘에 이르러 전국에서 3백여 사찰 1백50만명의 신도가 수행정진하고 있다.

태허종사 창종·법화사상 전교 전국에 사찰 3백곳·신도 1백50만



◇1939년 초대종정인 태허대종사가 서울 송인동에 건립한 묘각사 전경. 현재 관음종 총무원이 들어있다.

와 인력으로 화회중생 상구보리하는 보살행의 진정한 실행을 위하여 <법화경>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을 구체화하는 승속 일체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의 창종에 뜻을 두었다. 스님은 먼저 1957년 법화 행자의 모임체인 ‘일승불교 현정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하여 소수로 나와있던 모든 법화신행단체를 규합하여 통합체를 만들었다.

그후 법화교단 통합을 위하여 <대승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본존불로는 석가모니불, 보체보살로는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안립행보살을 봉안하고 가사와 법의도 통일하여 큰 이정표를 남겼다.

당시 흥선대종사는 몸소 파고다공원과 거리로 나서서 법화경을 강설하는 등 거리포교와 보살행을 실천 수행했다.

1965년 흥선대종사는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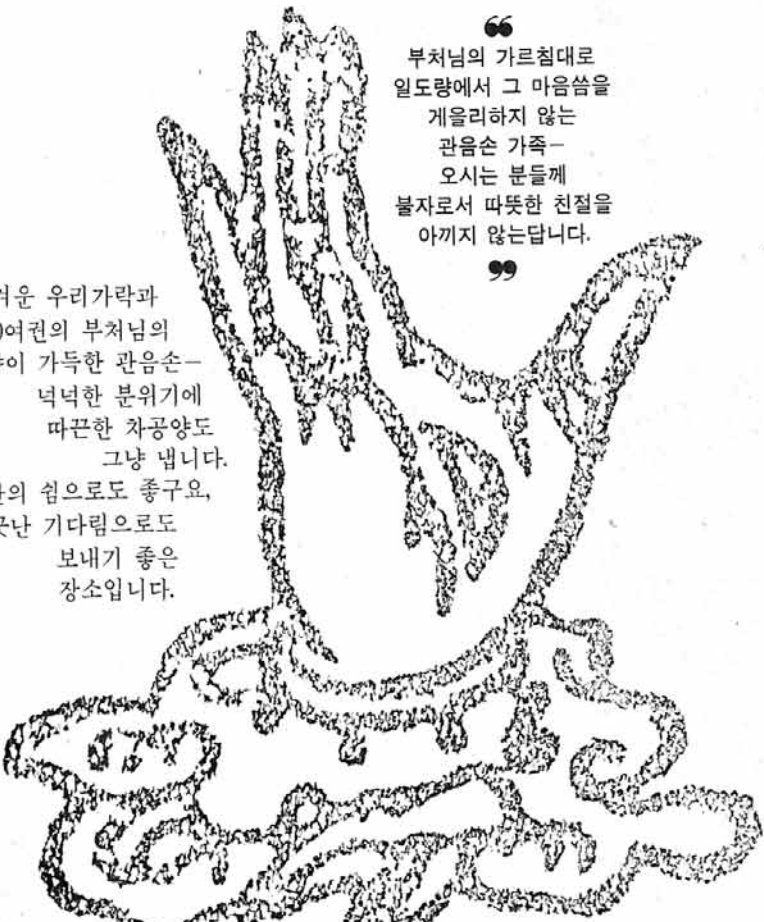


◇1979년 세수75세 법림50년으로 열반에 드신 태허대종사의 시리128과를 봉안한 부도.

관음손으로 오세요

“ 시내에 불일이 있으시면 관음손에서 만나세요 ”

정겨운 우리가락과 4,000여천의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관음손- 넉넉한 분위기에 따끈한 차공양도 그냥 냅니다. 잠깐의 심으로도 좋구요, 어긋난 기다림으로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일도량에서 그 마음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관음손 가족- 오시는 분들께 불자로서 따뜻한 친절을 아끼지 않습니다. ”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이나 3호선 안국역에서 하차, 조계사 쪽 입구에 있습니다.



720-1147-8

관음손에서 하는 일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텐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